



눈 마자 휘어진 대를 | 원천석

사우가(四友歌) | 이신의

두터비 폭리를 물고 | 작자미상

(가)

눈 마자 휘어진 대를 휘러서 굽다튼고

구불 절(節)이면 눈 속에 프름소냐

아마도 세한고절(歲寒孤節)은 너뿐인가 흐노라

- 원천석, <눈 마자 휘어진 대를>

초장 눈을 맞아 휘어진 대나무, 중장 '눈에 굽히지 않는 대나무의 푸름', 종장 '대나무의 절개에 대한 찬양'

(나)

동리(東籬)<sup>1)</sup>에 심은 국화 귀(貴)흔 줄를 휘 아느니

춘광(春光)을 번폐(煩弊)흐고<sup>2)</sup> 엄상(嚴霜)이<sup>3)</sup> 혼자 휘니

어즈버 청고흔<sup>4)</sup> 내 버디 다만 넌가 흐노라

- 이신의, <사우가(四友歌)>

초장 동쪽 울타리 밑에 심은 국화, 중장 된서리가 내리는 때에 홀로 피는 국화, 종장 국화의 청고한 기쁨

(다)

두터비 폭리를 물고 두힘 우회 치드라 안자

것년 산(山) 바라보니 백송골(白松骨)<sup>5)</sup>이 썬 잇거  
늘 가슴이 금즉하여 풀덕 썬여 내똥다가 두힘 아래

찾바지거고

모쳐라<sup>6)</sup> 늘넌 널식만경 에혈<sup>7)</sup>질 번흐패라

- 작자 미상, <두터비 폭리를 물고>

초장 두꺼비가 파리를 물고 두엄 위에 올라감, 중장 두꺼비가 백송골을 보고 놀라 달아나다가 자빠짐, 종장 두꺼비가 자기의 행동을 합리화함

어휘 풀이

1) 동리 - 동쪽 울타리라는 뜻으로, 국화를 심은 곳을 이르는 말. 2) 번폐 - 마다하고. 3) 엄상 - 된서리에. 4) 청고흔 - 맑고 고결한. 5) 백송골 - 송골매. 6) 모쳐라 - 마침. 7) 에혈 - 어혈. 타박상 등으로 피부에 피가 맺힌 것.



핵심점점

<눈 마자 휘어진 대를>

☑ 시구풀이

• 눈 마자 휘어진 대를 휘러서 굽다튼고

- 눈 맞아 휘어진 저 대나무를 보고 누가 감히 굽었다고 (절개를 굽혔다고) 하는 것이냐
- 눈의 무게에 대나무가 휨 모습을 보고, 누군가 대나무를 비난하고 있을 상황이 연상되고 있다. '눈'은 그 차가움으로 인하여 대나무의 생명을 위협하고, 동시에 대나무를 휘어지게 하는 대상이라는 점에서, 사군자의 절개를 지난 대나무에게 시련을 주는 대상이라 할 수 있다.
- 대나무가 눈을 맞아 일시적으로 휘어지는 것일 뿐 굽는 것, 즉 변절은 아니라는 뜻이다. 시대상황을 고려할 때 '눈'은 조선에 협력하기를 강요하는 압력이나 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.

• 구불 절(節)이면 눈 속에 프름소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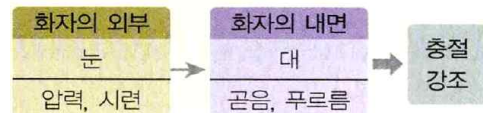
- (눈으로 인해) 구부러질 절개였다면, 어찌 눈 속에서 저리도 푸르게 빛나고 있겠는가: 설의법
- 눈의 무게로 대나무가 조금 휘기는 하였지만 매서운 눈발 속에서도 (그 잎은) 푸른빛을 고이 간직하고 있기에, 대나무가 고난 속에서도 본래의 모습을 잃지 않는, 즉 군자의 고결한 정신적 가치를 충실히 보여주는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.

• 아마도 세한고절(歲寒孤節)은 너뿐인가 하노라

- 아마도, 이 추운 겨울에도 홀로 절개를 지키는 이는, 너 뿐일 것이로다.
- 시적대상인 '대나무'를 사람을 대하듯 '너'라 칭하고 있기에 본 글이 '대상에 인격을 부여하여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음'을 확인할 수 있다.
- '너'라는 '2인칭 대명사'는 상대방이 바로 앞에 있을 때 사용하는 대명사이기에, 본 글이 '대나무'를 앞에 두고, 마치 대나무에 말을 걸 듯이 시상을 전개한 글임을 알 수 있다: 의인법
- 세한고절: 한겨울 추위도 이겨내는 높은 절개(핵심속성)

☑ 특징

- 성격: 절의적, 의지적, 회고적
- 색채감으로 주제 강조
- 설의법, 의인법, 상징을 통해 작가의 굳은 의지를 강조함



<사우가(四友歌)>

☑ 시구 풀이

- 동리(東籬)에 심은 **국화** 귀(貴)한 줄을 뉘 아나니
  - 저 동쪽 울타리에 심어 놓은 저 국화가 귀한 가치를 지닌 대상임을 과연 누가 알 것인가
  - '뉘 아나니'의 '~나니'를 통해, '설의적 표현'을 확인할 수 있고, 이러한 설의적 표현을 통해 '국화의 귀함'이 강조됨으로써, 화자가 '국화'를 예찬하고 있다.
- 춘광(春光)을 **번태하고** <sup>[마다하다]</sup> **엄상(嚴霜)에** <sup>[떨어지다]</sup> 혼자 피니
  - 따뜻한 봄 햇살을 굳이 마다하고 된서리가 내리는 이러한 날에 혼자 피어나니
  - '국화'의 이러한 모습은 편안하고 쉬운 삶을 선택하지 않고, 그 뜻을 지키기 위해 시련의 삶을 당당히 살아가는, 고결한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군자의 삶에 대한 비유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다.
- 어즈버 **청고(淸高)한** <sup>[높고 외향적]</sup> 내 버디 다만 **넌가** 하노
  - 아! 맑고도 고결한 내 벗이 하나 있다면 다만 국화 너만이 그러한 벗일 것이로다.
  - '청고함'이라는 '사군자로서의 국화의 긍정적 속성'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.
  - 시적 대상으로서 자연물인 '국화'에 인격을 부여하여 '벗'이라 칭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.(의인법)

☑ 특징

- 성격: 예찬적
- 국화를 의인화하여 지조, 절개를 표현함
- 대조적 시어를 사용

✓ 대조적 의미

국화	다른 꽃
'단상'에 혼자 꽃을 피움	'춘광'에 꽃을 피움
특별함	평범함

<두터비 꼬리를 물고>

☑ 시구 풀이

- **두터비** 꼬리를 물고
  - 두꺼비가 꼬리를 입에 물고
  - 덩치가 큰 두꺼비가 자신보다 훨씬 작은 꼬리를 입에 문 모습은, 권력을 지닌 양반이(특히 탐관오리가) 약한 백성을 괴롭히는 모습과 유사하기에, 본 글이 백성을 괴롭히는 탐

관오리로서의 '두터비'를 시적 대상으로 삼아, 탐관오리의 폭력적이면서도 허세스러운 모습을 풍자하는 글이다.  
: 비유를 통해 비판하는 글

• **두엄** 우희 치다라 안자

- 두엄 위로 달려 올라가 앉아
- '두엄'은 '거름 더미'를 뜻하는데, '두터비'를 '탐관오리'로 해석할 경우, '두엄'은 '탐관오리가 쌓아 놓은 부당한 재물'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.
- 초장과 중장은 화자가 두꺼비를 관찰하는 내용이다.

• **것년 산(山) 바라보니**

- 건너편 산을 바라보니
- 연약한 파리를 물고 조금 높은 곳에 올라가 제가 제일 잘난 듯 먼 산을 지그시 응시하는, 두꺼비의 거만한 태도가 연상되는 대목이다.

• **백송골(白松骨)** <sup>[뿔뿔이]</sup> 떠 잇거늘

- 흰 송골매가 떠 잇거늘
- 두꺼비는 송골매의 좋은 먹잇감이기에, '두터비'가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.

• **가슴이 금죽하여 풀덕 뛰어 내었다**

- 가슴이 섬뜩할 정도로 크게 놀라 풀쩍 뛰어 내리다가
- 자신보다 강한 존재인 '백송골'을 보자마자 지레 겁먹고 놀라 도망치는 '두터비'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, 약자에겐 강하고 강자에겐 약한 '두터비'의 이중적이고 치졸한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.

• **두엄 아래 갯바지거고**

- 두엄 아래 고꾸라지고 말았구나
- 두엄 아래로 고꾸라지는 두터비의 이러한 우스운 모습은, 조금 전 '파리'를 입에 물고 의기양양하던 모습과 대비를 이루며, 입은 이로 하여금 웃음을 짓게 하는 해학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다.

• **모쳐라** <sup>[마침]</sup> 날넌 **넬식만경**

- 마침 날넌 나였기에망정이지
- '넬식만경'의 '넬'이 '나', 즉 두꺼비의 인격화된 표현이고, 본 행이 '두꺼비가 사람처럼 말을 하는 내용'으로 구성되어 있기에, 대상에 인격을 부여하여 주제 의식(탐관오리의 횡포와 허세에 대한 풍자) 드러내고 있다.

• **에혈(瘀血)** <sup>[어혈 타박상 등으로 피부에 피가 맺힌 것]</sup>질 변하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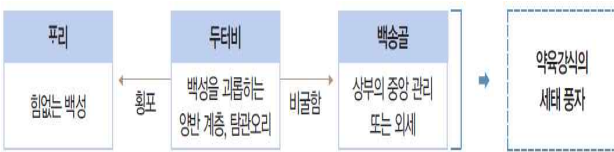
- (하마터면) 피멍이 생길 뻔 했구나
- 실제로는 '백송골'이 무서워서 후다닥 도망치다가 두엄 아래로 고꾸라졌으면서도, '내가 날쌔었기에 그나마 명도 들지 않았다'라며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있는 '두터비'의 허세를 확인할 수 있다.
- 중장의 화자를 표면에 등장하지 않는 일관된 화자로 볼 경우, 일정한 거리를 두고 두꺼비를 관찰하던 화자가 두꺼비의 말을 직접 인용함으로써, 두꺼비로 하여금 자신의 허세스러운 면을 스스로 드러내도록 하고 있음을 알

수 있다.

- 한편, 본 글의 화자를 복수의 화자로 이해할 경우, 본 종장의 화자는 '두터비'가 되는데, '두터비'가 행동이 날쌔다는 자신의 장점을 들어 자신의 행동에 대해 '자기합리화'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.

**특징**

- 성격: 풍자적, 우의적, 해학적, 회화적
- 대상을 회화화
- 탐관오리의 횡포와 '허장성세'를 우의적으로 풍자
- 화자가 바뀌는 구조를 통해 작가의 표현 의도를 반대로 나타냄



**원천성, <눈 맞아 휘어진 대를>**

- 주제: 대나무의 절개 예찬(고려 왕조에 대한 절의)
- 해제: 이 작품의 화자는 한겨울에 눈을 맞아 휘어지기는 했지만 꺾이지 않고 푸른 대나무를 보며 시련 속에서도 굽히지 않는 곧은 절개를 노래하고 있다. 고려의 유신(遺臣)인 작가는 시류(時流)에 영합하는 무리의 회유와 핍박에 굴하지 않고 두 왕조를 섬길 수 없다는 유학자적인 절의를 끝까지 지켰는데, 이 작품은 그러한 절의를 상징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.

• 구성

[초장] 눈을 맞아 휘어진 대나무

[중장] 눈에 굽히지 않는 대나무의 푸름

[종장] 대나무의 절개에 대한 찬양

**이념, <사우가>**

- 주제: 국화의 고결한 기품 예찬
- 해제: 이 작품은 소나무, 국화, 매화, 대나무가 지닌 덕성을 노래하고 있는 연시조로, 각각의 자연물이 지닌 속성에서 승고한 정신적 가치를 발견하고 있다. (나)는 이 작품의 제2수로, 춘광(春光)을 마다하고 뉘서리가 내리는 때에 홀로 피는 국화의 청고한 모습을 통해 국화의 고결한 기품을 부각하고 있다.

• 구성

[초장] 동쪽 울타리 밑에 심은 국화

[중장] 뉘서리가 내리는 때에 홀로 피는 국화

[종장] 국화의 청고한 기품

**작자 미상, <두터비 끈리를 물고>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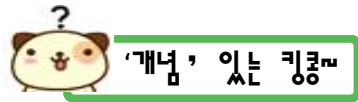
- 주제: 탐관오리의 횡포와 허장성세에 대한 풍자
- 해제: 이 작품은 두터비, 백송골, 파리를 소재로 하여 당대 현실을 익살스럽게 풍자하고 있다. 두터비를 힘없는 백성들을 리듬하다가 자신보다 힘 있는 존재 앞에서 비굴해지는 존재로 의인화하여 당대의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. 중장에서 두터비를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고, 종장에서 두터비의 자기합리화를 보여 주어 해석성을 복잡하는 기법이 인상적이다. 이 작품의 두터비는 자신보다 약자인 파리의 입에 물지만, 강자인 송골매는 멀리 보이는 것만으로도 공포에 휩싸인다. 이러한 두터비를 통해 약자에게 강하고, 강자에게 약한 인간들의 세태를 풍자하고 있다.

• 구성

[초장] 두터비가 파리를 물고 두검 위에 올라감.

[중장] 두터비가 백송골을 보고 놀라 달아나다가 자바바짐

[종장] 두터비가 자기의 행동을 합리화함.



1. 눈은 □□을 의미하고, 대는 □을 의미하여 서로 대조적인 시어이다. [ O X ]
2. 중장에는 변함없는 지조와 절개를 강조하기 위해 □□법이 쓰였다. [ O X ]
3. □□□□은 한겨울 추위도 이겨 내는 절개로 대나무와 화자를 동일시한 이유이기도 하다. [ O X ]
4. 흰색과 푸른색의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대상을 찬양하고 있다. [ O X ]
5. 대나무를 활유적으로 비유하여 생동감 있게 표현했다. [ O X ]
6. 인간과 자연의 속성을 대비하여 자연을 예찬하고 있다. [ O X ]
7. 세속적 욕망의 덧없음을 강조하며 은둔 생활의 즐거움을 보여주고 있다. [ O X ]

8. 상징적 대상을 통해 시류에 영합하는 무리의 핍박에 굴하지 않는 절의를 보여주고 있다.

[ O X ]

9. 화자와 상반된 대상을 제시하여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.

[ O X ]

10.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시적 대상에 대한 친밀감을 보여주고 있다.

[ O X ]

11. 사군자의 긍정적 속성을 언급하고 사군자의 가치를 부각하는 시련을 형상화하고 있다.

[ O X ]

12. 설의적인 표현을 통해 시적 대상의 속성을 강조하고 있다.

[ O X ]

13. 어조의 변화를 통해 화자의 태도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.

[ O X ]



'개념' 있는 키킹샘

1. 자연물을 벗으로 설정하여 그 덕을 □□하고 있다.

2. 시적 대상이 지닌 핵심 속성을 찾아 쓰시오. □□

3. □□적 어조로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.

4. 어조의 변화를 통해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.

[ O X ]

5. 이미지를 대비하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.

[ O X ]

6.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.

[ O X ]

7. 계절감이 드러나는 소재를 활용해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.

[ O X ]

8. 자연물이 지닌 속성에서 숭고한 정신적 가치를 발견하고 있다.

[ O X ]

9. 사군자로서의 대상이 지니는 심미적 가치를 다른 식물과의 대비를 통해 보다 강화하고 있다.

[ O X ]

10. '춘광(春光)과 '엄상(嚴霜)'은 대상의 긍정적 가치를 부각하는 '시련'으로 형상화되고 있다.

[ O X ]

11. '춘광(春光)'을 마다하고 피는 '국화'를 '칭고한 내 벗'이라고 표현한 것에서 시류에 영합하지 않겠다는 작가의 고고

한 정신을 느낄 수 있다.

[ O X ]

12. '엄상(嚴霜)'에도 혼자 핀 '국화'를 '내 벗'이라 여긴 것에서 자신의 신념을 버리지 않겠다는 작가의 고고한 태도를 느낄 수 있다.

[ O X ]

13. '칭고한 내 벗이 다만 넌가 하노라'에서는 올바른 덕을 지닌 인간이 그만큼 드물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.

[ O X ]



'개념' 있는 키킹샘

1. 비유를 통해 세태를 풍자하고 있다

[ O X ]

2. '두엄 우희 치드라 안자'는 두꺼비의 횡포를 드러낸다

[ O X ]

3. 시어가 구체적이고 생동감이 넘치는 느낌을 준다

[ O X ]

4. 의인화의 표현방식을 사용했다

[ O X ]

5. 대상의 모습을 희화화하고 있다

[ O X ]

6. 종장에 감탄사를 활용해 시상을 집약하고 있다

[ O X ]

7. 형식은 조선후기 민중의식이 성장하면서 활발히 창작되었다

[ O X ]

8. 역설적 표현을 통해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

[ O X ]

9. 두터비, 파리, 백송골이 의미하는 바는?

10. 종장에서 자기 실수를 합리화는 화자의 태도를 풍자하기에 적절한 한자성어는?(2개)

□□□□, □□□□

 눈 마자 휘어진 대를 | 원전석

사우가(四友歌) | 이신의

두터비 폭리를 물고 | 작자 미상

[개념있는 킵공]

(가): ①시련, 충 ②설의법 ③세한고절 ④O ⑤X ⑥X  
⑦X ⑧O ⑨X ⑩O ⑪O ⑫O ⑬X

(가): ①예찬 ②청고 ③영탄 ④X ⑤O ⑥O ⑦O  
⑧O ⑨X ⑩X ⑪O ⑫O ⑬O

(가): ①O ②O ③O ④O ⑤O ⑥X ⑦O ⑧X  
⑨두터비:담관오리,파리:힘없는백성,백송골:중앙관리,외세  
⑩허장성세,자화자찬

